

고용노동부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금)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장려금사업/고용안정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 '21년 평가등급 : 개선필요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상시·지속적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처우개선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내용)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전환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하여 월 9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예산 및 재원: 고보기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
□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금)	18,141	12,508	11,900 (95.1)	15,331	△2,810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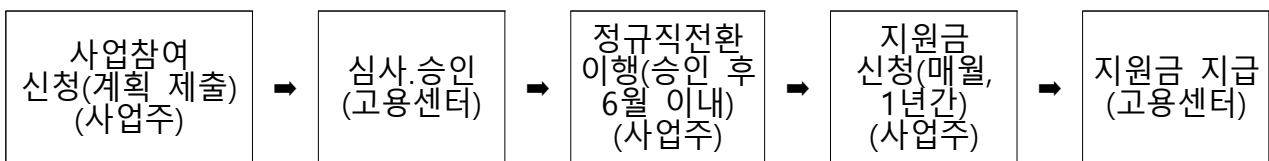
☐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주요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해당없음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 근로자 현황

- (참여 근로자 수) '20년 기준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최초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2,136명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근로자 중 0.1%, 고용안정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중 0.1%를 차지함.
- (성별) 여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이 43.1%로 남성 근로자의 지원비중(56.9%)보다 낮게 나타남.
- (연령별) 청년(47.2%)과 중년(45.0%)의 지원 비중이 높고, 장년(7.0%)과 고령(0.7%)의 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표 1〉 정규직전환지원 참여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장려금 전체	2,583,913 (100.0)	1,176,447 (45.5)	1,407,404 (54.5)	1,253,831 (48.5)	957,824 (37.1)	296,284 (11.5)	75,650 (2.9)
고용안정형 전체	1,544,811 (100.0)	642,233 (41.6)	902,516 (58.4)	797,478 (51.6)	504,824 (32.7)	191,128 (12.4)	51,137 (3.3)
정규직전환 지원	2,136 (100.0)	1,215 (56.9)	921 (43.1)	1,008 (47.2)	962 (45.0)	150 (7.0)	16 (0.7)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 사업장 현황

- (참여 사업장 수) '20년 기준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394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0.1%를 차지하며, 고용안정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중 0.2%를 차지함.
- (규모별) 300인 미만 사업장(94.2%)이 대다수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참여도(5.6%)는 매우 낮은 편임.
- (산업별) 서비스업(63.2%)의 참여 비중이 높고, 제조업(34.5%) 및 건설업(2.0%)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 정규직전환지원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100.0)	333,357 (99.0)	2,258 (0.7)	64,040 (19.0)	8,350 (2.5)	262,195 (77.9)
고용안정형 전체	188,202 (100.0)	186,963 (99.3)	546 (0.3)	27,975 (14.9)	3,117 (1.7)	155,680 (82.7)
정규직전환 지원	394 (100.0)	371 (94.2)	22 (5.6)	136 (34.5)	8 (2.0)	249 (63.2)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정규직전환지원 정량지표 결과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 ¹⁾	기업생존률 ²⁾
고용장려금 전체	81.2	25.3	84.8
고용안정형 전체	86.5	/	84.6
정규직전환지원	86.8	/	91.9

주1: 고용증감율은 고용창출형과 고용유지형에서만 산출하며, 고용유지형은 종료 후 고용증감율로 산출

2: 기업생존률은 고용유지형과 고용안정형에서만 산출

3: 모성보호형은 고용유지율만 산출

□ 만족도 조사 결과

○ 항목별 만족도

〈표 4〉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고용장려금 전체	4.20	4.19	4.19	4.36	4.21	4.17	4.05	4.16	4.28	4.16
고용안정 전체	4.23	4.21	4.20	4.34	4.20	4.19	4.12	4.14	4.29	4.17
정규직전환지원	4.22	4.16	4.24	4.30	4.28	4.26	4.14	4.24	4.30	4.18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그림 1]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주: 1) 만족항목

- 전체: 지원대상(28.8) > 지도수준(16.9) > 지도/관리(10.3) > 지원기간(9.8) > 신청절차(9.1) ; 없음(25.1)
- 안정: 지원대상(23.0) > 지원수준(14.6) > 지원기간(11.1) > 지도/관리(10.7) > 신청절차(9.8) ; 없음(30.8)

2) 개선항목

- 전체: 신청절차(8.6) > 지원기간(5.9) > 지원수준(4.8) > 지원대상(3.7) > 지도/관리(3.1) ; 없음(74.0)
- 안정: 신청절차(8.7) > 지원대상(4.5) > 지원기간(3.4) > 지원수준(3.3) > 지도/관리(2.3) ; 없음(77.7)

3) 추천 의향

- 전체: 4.29점, 추천(81.9=31.4+50.5) > 보통(15.4) > 비추천(2.7=2.1+0.6)
- 안정: 4.28점, 추천(80.7=30.1+50.6) > 보통(16.3) > 비추천(3.0=2.3+0.7)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 이 사업은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국정과제 관련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됨

- 국정과제 및 국가/범부처 수준의 중단기 세부과제에 명시된 사업
- 상시·지속적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처우개선을 사업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코로나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업주의 기피 요인을 완화하여 사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

□ 일자리 사업 성과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 기여
 - 20년 정규직 전환지원 대상자는 기간제가 97.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책 목적에 부합

<표 > 정규직 전환지원 대상자 현황(20년말)

(단위: 명)

합계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특고
4,323	4,208	79	28	26

주 1) 지원 대상 순인원은 4,323명이나, 신청서에 동일 대상자가 다른 인별 구분인 경우가 있어 구분별 합계와 다름(예시: 같은 사업장 동일 근로자가 기간제와 파견으로 신청)

2) 대상자 수는 전체 지원인원으로 정량지표의 최초 지원인원과 다름

자료: 고용부 제공

□ 운영의 적절성

- 본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수혜자 수가 과소하여 사업계획과 예산규모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집행률은 95%로 높은 편이나 20년 예산의 감소영향이 있었고, 지원신청 사업장 수가 정체되고 있어 유사 사업과의 경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로 20년 예산 조정(당초: 181억원→125억원)
-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시행초기부터 지원사업장 수 및 지원인원수가 과소하고, 연도별로 최초 지원인원도 정체되는 경향
 - 다만, 지원사업장과 지원인원의 정체는 코로나 사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최초 지원사업장 기준 18년 532개소, 19년 418개소, 20년 394개소
 - 최초 지원인원 기준 18년 2,838명, 19년 2,584명, 20년 2,136명

□ 제도개선 노력

- 중소기업의 기피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음
 - 사업장 내 비정규직 차별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과 연계하여 가점 부여하였음
 - * 20년 지원요건 완화(최저임금 110% 이상→100% 이상)
 - * 노사발전재단의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참여기업에 정규직 전환 심사시 가점(5점 부여)를 통해 사업장내 차별 요소 진단 및 개선 컨설팅과 연계

4 개선권고

□ 평가등급: 개선필요

□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에 비해 본 사업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부족
 -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금과 지원기간이 길어 당 지원금의 매력력이 저하(중복사업은 아님)
 - * 현장의 목소리: 6개월 이상 기간제로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당 지원금 요건), 3개월간 기간제로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 지원금(월 최대 75만원)도 크고 지원기간(3년)도 길어, 사업주가 당 지원금을 회피하는 경향
- 신청절차에서 필요서류 등 까다로운 요건 및 외부심사 절차로 인해 부정수급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사업주의 기피 등이 우려됨
 - 승인지원 절차 및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로 인해 신청사업자 중 승인 비중은 20% 내외 수준
 - * 사업주가 이직률, 퇴사율 관리의 까다로움, 신청한도, 제출서류, 승인기준 등
 - 사업주가 타 지원금(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유연근무제, 일가정 양립 등)을 선호하여 본 사업의 신청 기피

□ 제도개선 권고사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비해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문제를 포함하여 본 사업의 지원조건 상향 등을 검토해야 함
- 현행 '1개월 이상 고용유지'에서 6개월 이상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향후 2년 이상으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 현행 지원기간 1년 요건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이후 이직 또는 퇴직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지원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하게 되면 장기적 고용유지가 가능하고 관련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자동 연동되므로 임금증가분을 보존해주는 방법보다 단순하고 효과적일 수 있음
 -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 기간(3년)에 비해 짧다는 문제가 있어 본 사업의 지원기간 연장시 다른 사업과의 경합성을 고려해야 함
- 타 지원금과의 경합성을 고려하여 심사 및 서류제출의 간소화 방안도 검토 필요